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군부, 기아 위기 심각성 감추기 위해 수년째 정보 통제**



미얀마 군부가 기아 위기의 심각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체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로이터 통신의 조사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지속해왔다.

쿠데타 이후 6,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약 3만 명이 체포됐다. 로이터 통신이 인터뷰한 수십 명의 구호 활동가, 연구자, 국제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군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현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아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다룬 보고서를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미얀마 군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로이터는 미얀마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식량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문제 비영리 단체 IFS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9, 10월에 1,440만 명이 급성 식량 불안을 겪었으며, 유엔은 앞으로 몇 달 동안 2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십 년 동안 소수 민족 공동체와 반군 거점에 대한 폭력을 이어왔으며, 최근 정권 장악 이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운 및 농업 생산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권은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라카인 주로 향하던 식량 지원을 차단하거나 압수했다.

미얀마에는 다양한 민족 및 종교 집단이 존재하며, 인구의 다수는 불교 신자인 버마족이다.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와 조직력을 자랑하며, 근대 국가 형성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대부분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카렌족(Karen)의 약 20-30%는 기독교 신자이며, 친족(Chin)과 같은 다른 집단은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이다.

라카인 주에는 로힝야족이라는 대규모 무슬림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정권의 집단학살 대상이다. 로힝야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집단 학살의 피해자들로, 미얀마 군부의 폭력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의 중첩은 미얀마 전역에서 비불교도들에게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2023년 10월 이후 연합군의 공격으로 전장에서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대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패배 이후 군부의 전국적인 군사 작전 유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잠언 28:13-14)**

하나님, 미얀마가 심각한 기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보를 통제해 왔다는 군부의 소식 앞에 죄인의 비겁함을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스스로 죄인 됨을 인정치 않은 저들의 교만이 꺾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여 주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군부에 의해 고통받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과 교회들을 돌보사 주를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미얀마에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우간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 살해당해

지난 16일, 우간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6일 전했다. 제임스 무케네 하비부(29)는 지난 2022년 1월 아내와 함께 개종한 이후, 가족이 친척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친척들이 “가족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고수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지난 10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뒤, 친척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16일 오후 6시경 하비부는 부세타에 있는 장로교회의 다른 전도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약 30분간 추적당하고 있다며, 기도를 부탁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하비부의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키부쿠 중앙 경찰서와 리마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여러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후서 2:15-17)**

하나님, 무슬림과 친척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하비부 형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간다 교회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함을 더하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를 박해하던 자들이 돌이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 ▲ 러, ‘친서방’ 몰도바에 내년부터 가스 공급 중단 통보

러시아의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친서방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몰도바의 국영기업 ‘몰도바가스’가 대금을 연체했다며 내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유럽의 최빈국 몰도바는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가스관 사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중단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친서방 노선으로 기운 몰도바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겨울철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3일 몰도바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린도전서 1:25)

하나님, 동유럽의 최빈국 중의 하나로 천연가스 사용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몰도바의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나라의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던 이전 행보를 또다시 행하려는 러시아를 꾸짖으시고 이를 불모로 자국의 유익을 취하려는 탐심을 파하소서. 이때 몰도바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자시요,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로 몰도바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리라”  
종교와 신앙의 자유 위한 새로운 특사 임명



영국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FoRB)를 위한 새로운 특사가 임명돼 기독교 단체가 이를 환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특사로 임명된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의원은 노스 노섬벌랜드의 노동당 의원이며, 앞서 성서 공회(Bible Society)와 티어펀드(Tearfund)에서 일한 헌신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는 전 보수당 의원인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의 뒤를 잇는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영국의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와 다자간 포럼 참여를 통해 해외 거주인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FoRB)를 옹호하고 관용과 상호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권 장관인 하이버리의 콜린스 경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게 하도록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데이비드의 임명은 영국이 전 세계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두는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아무도 자신이 믿는 것, 또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자리에 임명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중동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종교 박해에 직면한 다양한 신앙인들과 직접 일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며 “모든 사람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공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픈도어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 CEO인 헨리에타 블라이스는 이 소식을 환영하며 “이것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데이비드 스미스 의원이 의회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러 NGO와 기독교 단체와 협력했으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그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특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2018년 도입된 이래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타신앙인의 어려움을 영국 정부의 의제에 계속 포함되도록 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린도후서 1:21,24)**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영국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특사가 새롭게 임명돼 박해에 직면한 세계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스미스 의원이 기독교 단체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이를 통해 환난 중에 인내로 신앙을 지킨 열방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영국에 저들의 소식이 비춤이 되어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말라위, 10대 미혼모·조혼 심각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10대 미혼모·조혼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가운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픔에도 희망을 찾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말라위에서 출산율은 1인당 4.2명이다. 15-19세 소녀 10명 중 3명이 출산할 정도로 10대 미혼모·조혼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음친지 마을에서 15-24세 청소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말라위 여성 청소년 성적권리 강화 및 사회적 자립 통합지원 사업'을 유엔인구기금(UNFPA) 말라위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소녀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 학교에 가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고 밝혔다. 릴롱궤 UNFPA 말라위 사무소 넬리다 로드리게스 소장은 "아프리카에서 18세 이하 여성 조혼율은 39%인데 말라위는 42%다. 15세 미만 여성 조혼율도 9%"라며 청소년들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하나님, 10대 여성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출산할 정도로 미혼모와 조혼 문제가 심각한 말라위 소녀들에게 아픔 중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립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취 주소서. 이 땅을 섬기는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 말라위의 모든 육체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옷 입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 ▲ 트리니다드토바고 갱단 폭력 점증...정부, 비상사태 선포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갱단 단속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크리스틴 강갈루 대통령은 이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갱단 범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도심 곳곳에 배치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당국은 성명 등에서 "범죄 조직이 무차별적으로 고성능 자동화 무기 등을 동원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갱단 활동 근절을 위한 실행 방안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48시간 이상 구금하는 한편 영장 없이 불심검문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군과 경찰에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주말 무장한 갱단이 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다른 갱단 리더 무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해 1명을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이튿날에는 보복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5명이 사망했다.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스테이티스타닷컴'에 따르면 2023년 트리니다드토바고 살인 범죄율은 10만 명당 37.6명으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 중 자메이카(60.9명), 에콰도르(44.5명), 아이티(40.9명) 다음으로 높았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한일서 3:15-16)**

하나님, 트리니다드토바고에 갱단 단속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나라의 치안을 다스려 주십시오. 갱단 간 세력다툼, 불법 무기 확산으로 그 폭력성이 더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이 땅에 악을 이기시고 선을 행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이때 교회를 깨우사 경건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를 정산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그 사랑을 아는 예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소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기독교인, 신성모독 혐의 기소 2년 만에 무죄 판결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o Nigerian Christian mother of 5, Rhoda Jatau.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로다 자타우(Rhoda Jatau)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가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2024년 12월 10일, 나이지리아 바우치 주의 한 판사는 2022년 5월 체포된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던 로다 자타우를 무죄 판결했다. 자타우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녀는 2년 반의 법적 공방 끝에 기소가 철회되고 자유를 얻었다.

당국은 자타우가 왓츠앱에서 디보라 엠마누엘 야쿠부(Deborah Emmanuel Yakubu)의 폭행 및 화형 사건을 비난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야쿠부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급우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대학생이었다.

자타우가 야쿠부의 화형을 비난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검찰은 그녀가 해당 영상을 공유한 행위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타우가 체포된 이후, 분노한 무슬림 군중이 그녀의 집과 마을의 다른 집들을 불태웠다. 자타우는 2023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19개월간 감옥에 수감돼 있었다.

그녀의 재판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계속됐고, 이날 그녀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자타우는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위치에 머물고 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타우는 다른 크리스천 수감자들과 매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자타우는 “우리는 매일 오후 4시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나눴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석방 소식을 들은 자타우는 “자신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말 행복했다’고 그 순간을 기억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3-25)**

하나님,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여성이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옥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타우 자매의 행보가 박해받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살해와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겪을 지라도 교회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붙들게 하소서. 이 땅 무슬림들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역사가 미치게 하사 은혜로 구원을 얻어 미쁘신 주의 언약 안에 살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유니세프 “전 세계 어린이 5명 중 1명, 분쟁 지역 살아”

전 세계 어린이 중 5명 중 1명은 분쟁 지역에 살고 있으며, 4억 7,3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뉴스1이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유엔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8일,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는 아동 비율이 19%로, 1990년대 10% 수준에서 거의 2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아동 성폭력 신고 건수가 1,00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2만 2,557명의 어린이에 대해 3만 2,990건의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반을 확인했는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약 20년 전, 세계 어린이에게 미치는 전쟁 영향을 감시하도록 명령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적으로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협에 직면했다. 또한 유니세프는 전쟁 중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며 수단, 가자 등에서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분쟁 중인 5개국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편 8:1-2)**

하나님, 전 세계 어린이의 19%가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앞에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오니, 열방의 다음세대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손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가득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 ▲ 한국교회,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긴급구호 나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한국교회가 긴급구호에 나섰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한국 기독교연합봉사단 한국교회봉사단 등은 현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인 12월 29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긴급구호활동을 결정하고 그날 밤 구호물품을 실은 채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 무안공항에 부스를 설치하고 긴급구호 물품을 나눴다. 이들은 “발걸음을 옮기며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다”고 전했다. 부스에서는 생수, 컵라면, 각종 음료와 과일, 치약, 칫솔 등 긴급 구호 물품이 유가족과 취재진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전남교회총연합회와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도 구호에 합류,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교회총연합회 대표 권용식 목사는 “한국교회 사랑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무안노회 소속 목회자 20여 명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팀을 나눠 현장을 지키는 등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로마서 12:15-17)**

하나님, 무안 항공의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슴 아픈 소식에 한국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손길을 통해 큰일을 당한 유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들이 낙심치 않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사람의 어떤 말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든 심령에 새기사 찬란한 천국을 소망 삼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